

신혜원의 가정법 산책 >> 글보기
'무'와 '고보'의 폭력

lawhwshin on June 22, 2011

흔히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이라 하면 남자가 아내를 때리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맞고도' 항구하고 사는 남자들도 많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이 말하는 가정 폭력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맞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 폭력으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폭행, 구타 및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인 힘, 동의 없이 강요하는 성 행위, 상대방을 가두고 감금하는 것, 상대방의 움직이려는 진로를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것,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하는 것, 기물, 집기를 파손하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 한인 부부 싸움에 자주 등장하는, '너 죽고 싶어? 네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너 하나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어.'는 가정 폭력으로 인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법원 서류에 늘 기입되는 '단골손님' 문구이다.

한 지붕 아래에서 발생한 가정 폭력 사례의 악몽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법정에서 서서 재판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또 아무리 돈을 밝히는 변호사에게도 끔찍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중에 의뢰인으로부터 가정 폭력 사례 얘기를 듣다가 배를 잡고 눈물을 흘려가며 웃어댄 적이 있으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

'날아가는 무': 의뢰인은 나이가 지긋한, 고향이 충청도인 아저씨였다.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젊어서 운동을 많이 했다고 강조하신다. 시큰둥한 나의 반응에, 지갑에서 태권도복에 블랙 벨트를 매고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짝은, 누렇게 빛바랜 사진을 꺼내신다.

'지가유~, 한 때는 잘 나갔슈~, 변호사님. 여자 잘 못 만나, 아이~구, 내가 맞고 살 줄... 아, 승질머리가 개떡같아,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졌싸유. 아, 글씨, 얼마 전에 깎띠(두)기 당는다고 무수(무)를 겁~나게 씻어대다, 냅~다 던져서 내 눈탱이에 맞고 죽는 줄 알았슈. 어매~, 무수가 올때나 크고 실한지, 안 맞아 본 이는 몰라유...'

'내리치는 고보': 의뢰인은 70 에 가까운 젊은 할머니였다. 나이에 비해 키도 크고 몸집이 꽤 다부졌다. 할머니의 영감은 평생, 으름장만 놓고 꼬장꼬장 까탈스레 속을 썩이더니 70 이 넘어서, 팍삭 늙었다 한다. 이제는 영감이 도리어 키가 더 작고 말랐다 한다.

할머니 왈, '아 이 영감탱이가 며칠 아파서 골골하길래 꿀 기 싫어 못 본 척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아픈 거야. 우리 영감이 입이 짧은데 고보를 넣고 꿇인 죽을 잘 드시거든. 왜 있잖아, 마켓 가면 파는 기다란 고보, 기다란 나무 가지처럼 생긴 고보 야. 내 큰 맘 먹고 고보를 사왔는데 아, 이 영감탱이가 나보고 접시 물에 코 박고 죽어야 싸다냐? 내 어찌나 밍고

서럽던지 손에 쥐고 있던 고보를 나도 모르게 영감 등쪽에다 갈겨냈지 뭐야. 아 그랬더니
'차알~씩' 소리에 영감 등쪽에 빨건 줄이 '쭈~욱' 간거야.....'

다행인지 운이 좋아선지 깎두기 담그는 조선무와 기다란 고보를 법정에 들고 갈 일은 아직은
없었다. 앞으로도 식재료로 때리고 맞았다는 얘기만큼은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해서라도
미국 법정에서 안 떠들고 싶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신혜원이 소유함을 명시합니다.

** 위의 기사는 본 변호사와 관련된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본 기사를 위하여
가상인물 및 상황을 설정,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